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6월 5일 성령강림대축일 · 다해 · 홍색

제57-22호

성령 -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

(요한 14:8~17)

부활 50일의 대단원은 성령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강림절, 혹은 오순절의 본래 이름은 “부활의 오순절”입니다. 성주간과 부활 성삼일이 구원의 역사를 낳으려는 진통의 시간이라면, 부활주일 이후 펼쳐지는 50일의 시간은 부활의 새 생명이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 안에서 퍼지고 스며들어, 저마다 외톨이였던 이들이 모여서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마음과 말이 통하지 않는 개인을 모아 서로 이어주고, 그 안에 핏줄과 숨결을 넣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은 생명과 삶의 기운입니다. 성령은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숨결이며, 희망 없는 사막의 마른 뼈들이 일어설 때 불어온 바람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맺힌 생명은 성령의 힘으로 일어났으며, 예수님의 세례 때에 내린 성령께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에서 부활에 이르는 성령의 힘을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내림은 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사

도행전이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의 무대는 변화한 국제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실력자들과 권력자들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천하고 차별받던 ‘갈릴래아’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이들의 입으로 복음과 부활은 세계로 펼쳐집니다. ‘갈릴래아 사람들’로만 이 놀라운 외국어 현상이 일어났을 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힘과 특권을 내려놓고 함께 모인 공동체에 내린 성령은 사람마다 지닌 은사를 이용하여 서로 도우며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머물면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매 주일 생명과 변화의 성령을 청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례 안에서 성령은 평범한 밀떡과 포도주를 고귀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진리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머물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기쁨부음 받은 사람)로 세우십니다. 작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모여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종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애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오늘 성령강림대축일

부활의 위대한 50일을 완성하는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제단의 걸개 그림과 제단 꽃장식, 그리고 교우들의 빨간색 옷차림으로 성령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또한,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다양한 조화를 상징하여 <퀼트> 장식(문해화 사라 교우 작)을 성당 로비에 전시하였습니다. 오늘 축복기도 전에 부활초를 끄고 우리 마음과 교회 안에 성령의 불꽃을 품어 살아갑니다.

2. 성삼위일체주일 - 다음 주일

다음 주일(6월 12일)은 성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신비한 일치와 친교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되새기며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3.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6월 교회위원회

오늘(6월 5일) 오후 12시 45분 성전

2. 세례성사와 신자영접

6월 12일(성삼위일체주일) 오전 11시 성찬례 중 성전

세례성사: 백지웅 미카엘(후견인 주요한),

강현모 사도요한(후견인 송종익)

신자영접: 심종은 도마, 최유정 이아(후견인 한재업, 박계자)

3. <신학잡담회> 시즌 2

일시: 6월 16일 (목) 오후 7시

장소: 스멜팅 커피 (문래역 7번 출구)

주낙헌 요셉 신부와 함께하는 <신학잡담회 -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신학잡담회는 신앙 생활, 신학과 교회 이야기, 사회에 관한 신앙인의 관점을 성직자와 참여자가 자유롭게 나누는 모임입니다. 영등포 성당 인근(문래역 7번 출구)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남녀노소, 종교유무를 떠나 누구든 환영합니다. 음료 한 잔과 열린 마음을 준비하여 오세요.

■ 활동단체 소식

◆ 성가대 - 남성 성가대원 모집

남성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돕는 봉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문의: 성가대장 조혜순 아가타 010-2318-3381)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오이지 6개 3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감사합니다

꽃 봉헌: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이하여 이순경 교우께서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떡과 음료 나눔: 지난 주일 김종희 요셉 - 김예중 요안나 교우의 자녀 결혼식 감사로 교우들에게 떡과 음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 생일 축하합니다

이순환(6일) 고창현 한종윤(7일)

◆ G.F.S.의 목주 나눔 ◆

전국의 재정이 어려운 신부님들께 한권의 책이라도 구입해 보실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했던 영등포 성당 G.F.S.의 목주 판매 사업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도움으로 신부님들에 이어 결혼가정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10여년 동안 목주 판매에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신 영등포 성당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강림대축일을 축하하며, 영등포 성당 G.F.S.에서는 교우들과 목주 나눔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G.F.S. 목주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등포 성당 G.F.S. 회원 일동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현금

구균하신부 김난희 김민숙 김종희 박해웅 송미경 신명식 신환중 윤선구 윤영자 윤지훈 이경희 이복련 이순경 이용해 장분순 전병도 정준희 주낙헌신부 최종주 최효운

■ 주정현금

김경아 김삼홍 박성준 박소현 박주영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송미정 송종익 신회숙 유권열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이경희 이광자 이성빈 이은미 이정숙 전병도 정명옥 정상임 주창순 한부순

■ 감사현금

김종희(자녀혼배) 박영수(퇴원) 신회숙(생활) 오현희(부친별세) 유베드로(생활) 유인환(생활) 윤영옥(평일미사) 차기성(승천대축일) 차준혁(차석호별세기념)

■ 구역현금

■ 기타현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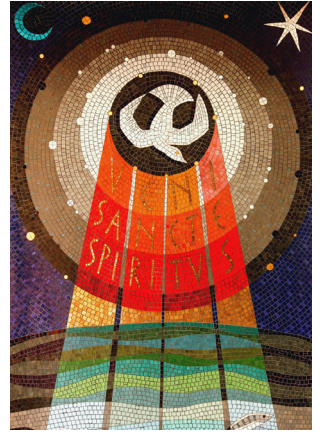
- 나눔의집현금 박영수 윤용환 이복련
- 예수사랑현금 이복련
- 온라인선교현금 이복련
- 여성선교현금 이복련
- 성공회대장학금 윤용환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현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성령의 교회, 모자이크, 퀼트

예수님의 부활 8주일은 성령께서 내리심을 기념하는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부활 후 ‘50 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펜타코스트)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신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성령 하느님은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며 조화롭게 일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주신 불꽃을 몸과 마음에 담아 함께 빛을 이루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술 작품으로 신앙의 사건과 신비를 표현할 때, 모자이크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저마다 색깔과 크기가 다른 조각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단의 걸개그림은 영국 어느 성당 세례대 앞에 있는 모자이크의 일부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구원의 일꾼이 됩니다.

퀼트(quilt)라는 바느질 기법이 있지요. ‘여러 찌투리로 채워 넣는다’ 뜻인 라틴어 ‘쿨티타’(cultita)에서 나온 말입니다. 버려진 조각,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형짚을 서로 모으고 엮어서 큰 아름다움과 쓸모를 만드는 멋진 예술 작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혜와 애환이 밤을 지새는 수고의 땀과 만나 포근한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계 아프리카인들의 퀼트 작품은 그 모진 억압과 가난 속에서 놀라운 상상력으로 피어나 아픔을 이겨내고 고통을 품는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당 곳곳에 걸린 퀼트 작품(문해화 사라 교우 작) 역시 우리가 품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아픔이 저마다 모여 세상 사람을 환대하여 품어주는 교회를 귀하게 드러냅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느님께서 조각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 저마다에 심어주신 선물에 불꽃을 붙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꽃을 켜서 함께 큰 빛을 이루고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포여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복된 이불의 공동체입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상황을 넘어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 ◆ 사회와 정치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하여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하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얼(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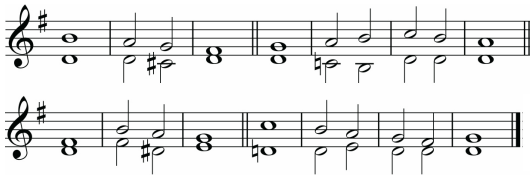
입당성가(선다) ♪ 235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4 다함께
영광송 (B곡) ✧ 246 /♪ 75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시나이산에서 연기와 불 가운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령의 불 가운데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도 주시어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사도 2:1-21 말은이
시편 시편 104편 다함께



1 저 크고 넓은 바-나다,
○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고,
2 배들이 이리 오고 저리 |가-|고
○ 손수 빛으신 레비아단은 당신의 장난감입니다.
3 때를 따라 주시는 먹이를 기다리며
○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쳐다|보다가
4 먹이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먹으|니,
○ 손만 벌리시면 그들은 |배부|릅니다.
5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 숨을 거두어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6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 온 누리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2 독서(읽는다) 로마8:14-17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295 /♪ 55 말은이
복음서(선다) 요한 14:8-17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95 다함께
봉헌성가 ♪ 303장/G.F.S.회 다함께
예물기도 ✧ 295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B곡) ✧ 257 /♪ 77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259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270 /♪ 78 다함께
영성체 (앉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총의 이슬로 우리 마음을 적시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부활초 끄기(선다) 말은이
축복기도(선다) ✧ 295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308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6월 5일)		다음 주일 성찬례 (6월 12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이성빈	우영현	이복련
2독서	서정민	김예중	서정민	박남미
대 도	이경희	추경민	신명식	김종희
십자가	박해웅	이용해	윤용환	차기성
다음 주일 6월 12일	전례독서 잠언 8:1-4, 22-31 시편 8 로마 5:1-5 요한 16:12-15 성 가 입당 324장 봉헌 325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575장			
교 회 청 소	6월 11일 안드레회 2주 서남철 윤선구 박영수 유권열 유인환		6월 18일 안드레회 3주 김삼홍 차기성 전병도 김종희 김종현	